

# 단양 구낭굴 출토 숲의 수종분석을 통한 기후복원<sup>1)</sup>

박원규\*, 김경희\*\* · 김요정\* · 이용조\*\*\*

(\*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 목재·종이과학전공, \*\*국립청주박물관 보존과학실,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초록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단양 구낭굴 유적에서 출토된 숲의 수종을 10cm 간격(층위)으로 분석하였다. 총 29개의 층위에서 조사하였다. 총 숲 시료는 280점으로 대부분의 시료가 매우 작아서 횡단면을 보고 분류해 나갔다. 수종식별을 위하여 우선 시료를 삼단면으로 만들어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시료를 1차 분류하고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삼단면을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미세한 파편 상태로만 숲이 남아 있어 총 280점중 218점만이 식별 가능하였다. 동정된 수종은 침엽수는 소나무와 가문비나무, 활엽수는 느릅나무과(느릅나무속, 팽나무속, 시무나무속), 뽕나무과, 장미나무과 (벚나무속, 장미나무속, 개살구나무), 고로쇠나무류와 상수리나무류 등으로 총 11속 13종이었다. 한대성기후 표식종인 가문비나무이외는 모두 온대산 수종이었다.

---

<sup>1)</sup>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KRF-2002-072-AM1013)



Fig..1 Quercus spp.



Fig..2 Pinus s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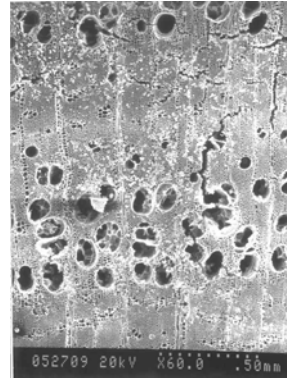


Fig. 3. Morus s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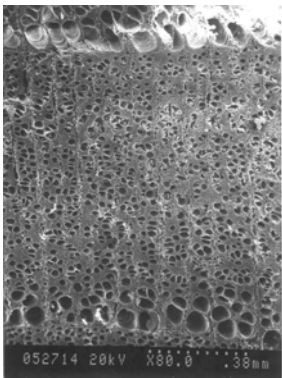


Fig. 4.. Prunus s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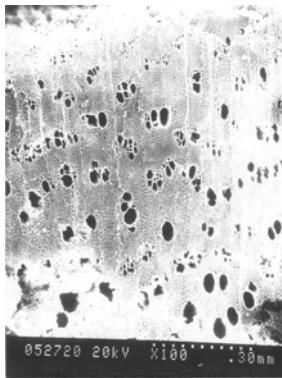


Fig. 5. Hemiptelea s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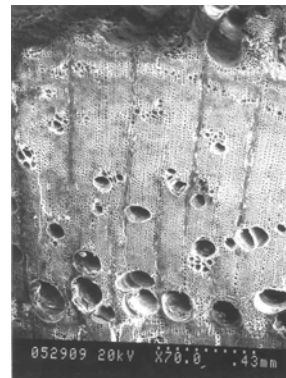


Fig. 6. Celtis s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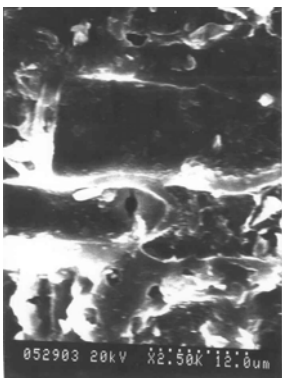


Fig. 7. Picea s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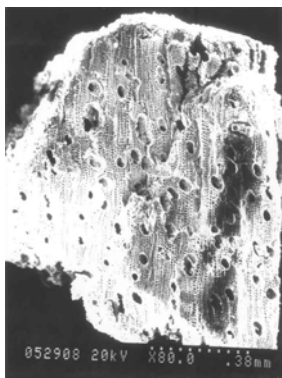


Fig. 8. Acer s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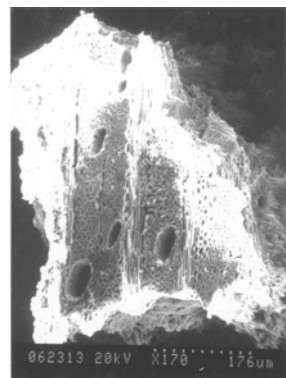


Fig. 9. Rosa s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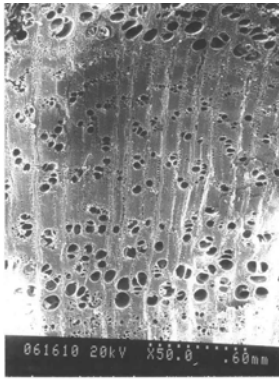


Fig. 10. *Celtis* s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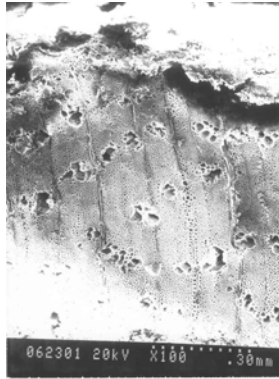


Fig. 11. *Ulmus* s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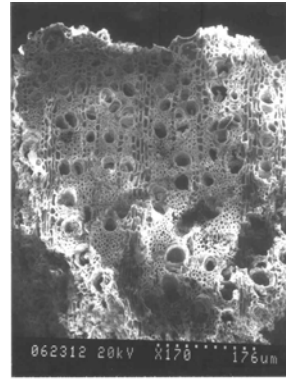


Fig. 12. *Prunus* spp.